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의의

CHRISTIAN PERSPECTIVES ON
LEARNING

서 칠 원

1. 지각과 지식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자기의 생활환경과 그 안의 사물들을 지각한다. 이 환경은 생소한 환경이라기 보다 친숙한 환경이라고 할 것이다. 그 환경의 존재와 신비로움에 대한 경탄은 지각 다음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의 존재, 그 특성, 구분점들을 알고 상호연관 관계도 안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처럼 그 본성으로 아는 것을 바라고, 알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지식 획득을 위해 생태적으로 주어진 감각기관들을 활용한다. 활용이라기 보다는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지각 형태를 띤다. 그리고 알게 됨을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이라기 보다 자기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이므로, 그 지식은 곧 자기 생활에 활용되어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즉 사람의 삶은 지각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지식으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한다. 각 사람의 세계는 그가 지각하고 관련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의 세계는 그의 지각과 지식의 확대에 비례한다. 이렇듯 사람은 다 지식의 추구으로 성향지어져 있다.

감각기관

사람은 그의 지식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획득한다. 철학자 칸트는 감각기관은 지식 성립을 위한 표상들의 수납기능을 하고, 오성이 판단 작용을 함으로 지식이 성립한다고 하지만, 감각기관들도 지각하므로 지식을 획득한다고 해야 바를 것이다. 감각기관들의 지각작용에 오성의 판단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각 자체가 바로 지식 - 비록 그것이 감각지식이라 할지라도 - 을 제공한다. 혹은 지각이 바로 지식이라고 해야 바르다.

사람은 감각기관(senses)을 통해 지각작용(perception)을 하며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그 중에서 시각기관을 통하여 가장 많이 알고, 또 보는 것을 확실한 것, 곧 지식으로 삼는다. 보는 것 곧 시각을 통한 지각을 지식으로 받을 뿐 아니라 실재 자체로 여긴다.

사람은 시각에 의해 가장 광범위하게 하는데 이 시각을 통한 지식은 빛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각과 생활환경 혹은 자연 곧 창조가 연결되어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각활동은 바로 지각자인 사람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각 다음으로 사물의 지각과 지식의 획득은 청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보는 것 곧 시각 다음으로 가장 광범위한 지식을 획득하는 수단이

바로 청각이다. 사람은 들음을 확실한 것으로 받는다. 그것이 비록 거짓일지라도 확실한 것으로 받는다. 따라서 지각행위에는 늘 믿음이 작용한다. (cf. Kuyper, principles of sawed theology, pp. 125-146) 이 믿음의 행위없이는 사람의 지각활동과 학문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믿음행위가 지각한 것과 사물과를 일치시킨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각을 실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청각은 공기의 매개에 의해서 지각하므로 빛의 매개에 의한 지각보다 그 범위가 더 광범위하지 못하다.

그 외에 촉각, 후각, 미각 등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지식을 획득한다.

이렇게 인간은 감각기관으로 자기주변의 사물들을 인지하고 깨달아 지식을 획득한다. 그리고 통상 이 지각단계에서는 감각적 지식에 오류가 없다고 말해진다. 중세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이렇게 확실하게 진술하였고 18세기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도 유사하게 진술하였다(그의 순수이성비판:감성론). 화란의 철학자 도에베이트르(Herman Dooyewaard)는 이런 단계의 지식은 전이론적 단계의 지식(pre-theoretical knowledge, Kennis)이라고 하여 대상과 주체가 깊은 상호 연관 속에 있기 때문에 지식자에게 대립하는 이론적 지식과 구분하였다.

II. 지식의 성립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식 성립에는 이 단계를 포함하면서도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박 실재론은 감각지식이 실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지만 감각적 지식이 실재와 완전 일치로 보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합리적 사고의 시작 단계인 회랍철학의 초기부터 감각은 미망과 오류의 길이고 진리에의 길은 이성으로라고 하였다.(파르메니 교훈시 참조)

근세에 들어와서 영국의 경험론은 지식 성립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표상들의 연관작용으로 보았다. 바로 이 경험적 지식만을 참지식으로 보았다. 이에 대륙의 합리론은 감각적 지식이나 표상은 이성이 활동하는 재료를 제공할 뿐이요, 실재의 지식은 이성에 의한다고 주장하였다.

로크의 지식론

그러나 근세는 데카르트의 내재주의라는 인식

론적 전환으로 시작하고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어도 근세가 근세로 정착한 것은 경험론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록크(John Locke)의 인식론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인간 이성은 고유한 원리나 관념들(ideas)을 알지 못한다. 경험만이 우리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다. 특히 외적 지각에 대해서 이성은 수동적이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표상들을 결합하는 일을 이성이 할 뿐이다. 일반적인 관념들은 이 표상들의 비교와 연합, 혹은 분리로 얻어질 뿐이다. 진위는 두 표상간의 일치와 불일치이다. 그리고 판단의 진리는 직관적 지식(intuitive knowledge)으로 알려진다. 우리의 확실성과 명료성이 이 직관적 지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표상 혹은 지각을 지식으로 받으므로 회의론에 귀결하게 되어 확실한 지식과 학의 성립을 위하여 칸트는 지식의 성립에 이성의 역할을 매우 크게 하였다.

칸트의 구성주의

칸트에 의하면 감각기관 곧 감성(sensibilität, sensibility)을 통해서 들어온 지각은 표상으로서 지식 구성의 재료일 뿐이고, 아직 지식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이 이 표상(vorstellung, representation)에 형식과 범주를 제공한다. 인간의 이성이 제공하는 제일 첫번째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의 형식이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감성에 나타나는 표상세계 혹은 현상세계는 무질서와 혼돈의 영역이어서 먼저 이성이 감성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부여해야 질서를 갖고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온다. 이처럼 칸트에 의하면 자연 혹은 창조세계가 무질서와 혼돈의 영역이고, 그러므로 도에베이트르의 지적대로 창조의 로고스적 성격이 배제된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의 표상형식에 의해 질서있게 정리되어 들어온 표상들이 오성에 의하여 범주들이 적용되어, 판단 작용에 이르게 된다. 즉 표상들을 상호 연결하고 분리하여 판단형식에 이른다. 이 판단을 통하여 이 표상들을 지식으로 정립한다. 이 과정에서 이성과 인식대상의 합치가 이루어지므로 지식이 성립한다.

판단작용이 오성의 기본 기능이라는데 철학자들의 의견을 같이 한다.

추리

오성의 판단으로 얻어진 지식은 다음 단계로 이월되는데 이 지식을 토대로 추론한다. 이 추론에

는 기억력(이미 얻은 지식)과 사고의 논리적 연결이 큰 역할을 한다. 칸트는 오성이 지식을 획득하고 이성인 그 지식들을 하나의 지식체계로 통일하는 통일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말하여 이성이 지식 성립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추리와 논리적 사고의 연결은 이성이 한다고 해야 바르다. 그러나 이 단계의 지식은 이미 있는 지식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지식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표상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오성의 경우보다 확실한 지식 혹은 직접적 지식이 아니어서 개연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식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지각에 오성의 판단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이루며, 이성의 추리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확대한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고 축적한다. 인간은 지식추구의 굴재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지성에 두었다. 사람이 두 다리를 가진 것은 우연적인 것이요 합리적임이 본질적이라고 정의하였다.

III. 학 문

그러나 지식을 지식 성립의 방식으로 축적한다고 해서 학(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의 축적이 학이 되려면 먼저 창조(인류사회영역 포함)의 한 국면을 지식탐구의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창조의 일정한 영역을 구분하여 탐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일정 영역으로 구획된 사물들의 구조와 성질, 그 법칙과 상호관계를 탐구한다. 이 탐구에는 재료의 수집, 비교검사, 관찰과 실험 등을 진행하며, 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들을 제시한다. 그런데 경험된 영역을 주로 다루므로 탐구의 대상이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대개는 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세우고, 그 이론들에 의해 미경험의 영역이지만 유사한 현상들을 설명한다. 설정된 이론이 경험된 일정국면의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면, 즉 사실들에 의해 신입된다. 또는 증거를 받으면 타당한 것으로 수납되고 그 지식 체계의 하나로 통용된다.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이론은 사실들에 의해 수정된다. 한 이론이 사실적 증거들에 의해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못하면 가설의 영역에 머무른다. 이렇게 하여 그 탐구의 영역에 속한 사물들의 연구결과들을 해석하여, 하나의 기본 이념(idea) 아래 유기체적 연결을 이룰 때 이것이 학이 된다.

이 지식 획득을 위한 활동은 계속적이어서 그 활동을 통해 지식의 양은 계속 성장한다. 즉 창조의 한 국면을 계속적인 지적 활동을 통하여 탐구하여, 그 획득된 모든 지식을 하나의 통일 원리 혹은 하나의 기본사상 아래 해석 작업을 거쳐 유기적 연결을 짓는 것을 학이라고 한다.

구성요인들

학을 성립시키는 기본요건들을 요약하면, 먼저 탐구의 대상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론적 탐구의 계속적인 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획득된 지식들을 통합하는 원리나 기본사상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표준

학이 학으로서 성립하려면 학의 구성 혹은 체계구성이 일정한 표준에 맞아야 한다. 첫째로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사실에 의해 증거되지 않을 경우 논리적 비약이나 불합리한 전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논리적 법칙들을 범해서는 안된다. 논리적 법칙들을 범하는 것은 학적 자살 행위라고 할 것이다. 둘째로 지식은 항상 사실들에 의해 증거되어야 한다. 사실적 증거가 없는 이론적 전개는 공허하고 추상적이어서 바른 지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론적 전개는 반드시 신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식 체계는 실재와 상응하지 않으므로 무가치한 것으로 배척된다. 세째로 비판적 사고에 의해 개진되어야 한다. 학이란 이름 때문에 가설들의 연속이나 그런 집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 독단적 주장과 이론으로 전개하는 것은 지적 횡포이고 독재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론이나 지식은 사실과의 대응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실재의 탐구가 아니라 허구의 연속이다. 사실 이런 것도 사람들의 믿음속성 때문에 진리로 수납되어 맹목적으로 반복되고 주장된다. 학적 활동은 그러므로 반성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한다.

네째로 체제 내에서는 대립과 모순이 있어서는 안된다. 처음 부분에 있는 진술과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경우들을 본다. 이 경우는 학자가 자기 체제 구성에 있어서 아직 자기의 영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며 아직 그의 사고가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나아가서 자기의 영역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하여 그의 학적 체제는

체계가 되지 못해 붕괴되도록 작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체계 내의 상호모순과 대립되는 진술들 만큼 그 체계에 치명적인 것이 없다. 다섯째, 모든 지식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의 기본 관념이나 사상 아래 모든 지식들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의 학이 된다. 학은 유기체적인 조직체이다.

대상: 창조의 로고스적 성격

우리가 탐구하려는 창조의 국면들은 인간의 지성으로 탐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중세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성을 정의하여 사물의 본질을 읽음(intus + legere)으로 정의하였다. 이 말은 인간의 지성이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 혹은 창조의 국면들이 합리적임을 표현해주는 것이다.

회랍의 초기 자연철학자들과 그 후의 대철학자들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등도 자연이 합리적임을 인정하였다. 스토익 학파는 로고스(Logos)가 만물을 관통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는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자연 혹은 창조가 합리적이라는 데는 전혀 의심이 없었다. 이것은 과학적 탐구와 검증의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인류의 공동의 믿음이라고 해야 바르다. 자연과학도 그들의 탐구의 대전체가 자연의 제일성(uniformity of nature)인데 이것은 증명될 사항이고 늘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며 원칙이다.

합리적 체계

이 자연의 합리적 성격을 화란의 철학자 도에 베이르트는 창조의 로고스적 성격이라고 하였다. 창조는 하나님의 경륜 곧 그의 지성의 역사로 생산되었으므로 창조가 로고스적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창조의 모든 구성과 진행은 다 하나님의 지식체계의 반영이고 그 구현체이므로 창조는 합리적 체계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의 탐구가 가능하고 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해석되었다. 20세기 미국의 변증신학자 반틸(Cornelius Van Til)의 강조대로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 사전에 해석되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의 지식체계의 실현이고 그 결정체이므로 무한한 지식체계의 반영이고 또 표현이어서 일정한 한정된 대상으로 그 탐구를 국한해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지식을 다 획득해 내지도 못하고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새롭게 증가되고 지식의 체계는 다시 해석, 구성될 수 있다.

불합리론

그러나 근세 이후 이성활용의 증대로 창조가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탐구의 대상들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하여 지식성립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중대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세상, 곧 우연이 지배하고 시간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었다. 대상은 근본적으로 불



저자소개

서철원 교수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학 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웨스트 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전공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합리하고 무의미한 사실들(*bruta facta*)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상세계에 법과 질서를 인간이성이 부여하고 세운다고 보게 되었다. 이때 비로소 세계는 합리적이 된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세계에서 이성의 활동으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이 칸트에 의해 가장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개진되고 체계화되었다. 이것이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수집한 구성주의 철학이다.

이런 근세인의 사고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경륜의 역사를 배제하고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근세인은 그의 사고 곧 그의 인식론에 있어서 존재론을 배제하려고 줄기차게 노력하였다. 할 수 있는대로 인식론적 진술이 존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Rudolf Camap, *Meaning and necessity*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세 이후 학문들 특히 자연과학의 큰 발달은 모두 창조의 로고스적 성격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였다. 이런 믿음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고유한 믿음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순정상태에서의 학

순정성의 상태에서는 근세인들의 사고가 작용한 것이 아니다. 아담은 그의 의식활동에 있어서 창조주의 마음과 주파수가 잘 맞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정한 대로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아담의 사물 이해와 해석이 하나님의 창조내용과 일치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성대로 파악하여 지식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지식체계는 하나님의 지식체계와 유사하였고 오히려 그 복사물이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하였으며, 또 해석하였다. 또 그가 사물을 탐구할 때는 현재의 학적탐구의 방법인 자료수집, 비교, 실험, 검증과 논리적 추리에 의한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지성활용의 최고 단계라고 할 직관에 주로 의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직관적 지식이 사물의 본질 이해에 가장 잘 접근하며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아담의 사물 지식은 이성의 바른 사용에 의한 바른 지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성대로 파악하는 일에 직관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밝은 계시 곧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아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사물을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재구성한 유비적 지식이었고 하나님의 해석을 재해석하여 참된 지식에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지식 체계를 따라서 아는 유비적 지식 체계를 구성하였다(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참조). 즉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대로 알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므로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아담은 그러하였다. 하나님의 지식은 원형적 지식이고 우리의 지식 곧 아담의 지식은 도출적 혹은 모형적(模型的)이었다. 그리고 창조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바른 해석이고 그것이 원해석이므로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서 하는 재해석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담이 창조의 운명과 역사에 대한 해석은 재구성된 해석이므로 참되고 바른 해석이었다. 또 아담은 지식과 해석의 진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하였다. 모든 참과 거짓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그 표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하여 아담의 지식체계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체계를 닮았을 뿐 아니라, 그 원체계를 축소한 유비적 지식 곧 참 지식체계를 이루었다. 더우기 그의 지식체계는 한 분야에 국한한 지식(현금의 전문적 지식)이 아니고,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포괄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지식체계는 일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체계이었고 또 유기적 연결이 바르게 이루어진 완전한 학이었다.

Ⅲ. 타락후의 학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바뀌었다. 이 타락은 존재론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신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니다. 타락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에서 자주적이 되려고 하는 시도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피조물의 신분 자체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것은 윤리적 관계의 변화이어서 윤리적인 반역이었다. 그러므로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았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는 지대하고 과격하였다.

이성의 자율성

여기서는 지성에 미친 죄의 결과에 국한하려고 한다. 인간은 그의 지성활동에 있어서 의존적인 지식활동에서 자주적이 되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의 종속에서 이성의 자율성으로 옮겨왔다. 모든 진위의 표준을 하나님의 경륜 혹은 그의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옮겨오고, 하나님의 지식체와 전혀 독자적인 지식체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활동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자신에게 법이 되었다. 그리하여 진위(眞僞)를 인간의 이성이 결정하고 선악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결정하였고 또 생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이성이 자체 충족한 것으로 여겨 독자적인 지식체계를 구성하였다.

모든 논의와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진위 결정의 표준을 이성으로 삼았다. 나아가서 근세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Rene Descartes)의 경우에서처럼 확실성의 근거도 이성에서 구하였다. 모든 것을 이성에서 출발하여 이성으로 결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성을 모든 진술에 있어서 궁극적 참조점으로 삼았다. (C.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참조) 이처럼 이성의 자율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진위와 선악이 종족들 간과 개인들 간에 달라지게 되었다.

포괄적 지식 추구

또 인간은 유한하므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체계를 다 알 수가 없다. 즉 포괄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없고 또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인간은 포괄적 지식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추구하였다. 창조의 전영역을 다 탐구하고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의 탐구 영역에서 얻은 지식과 그 체계로 다른 영역들을 같은 형태로 해석하고 통합하는 주의(-ism)화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주의화는 다른 영역의 특성들과 고유한 법칙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영역 내의 특성과 법칙으로 귀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각 영역의 특성과 법칙을 말살하는 것이어서 실재의 바른 이해가 아니고 실재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재를 왜곡하고 허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 포괄적 지식과 통일적인 보편체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분과별 학문들이 실재의 바른 이해 곧 바른 지식체계가 아니고 허위와 오류의 집합임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보편체계 구성의 욕구 때문에 실재의 이해를 변용하고 곡해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학문의 세계에 계속되어 수리주의(mathematicism), 생물주의(biologism), 감각주의(sensualism), 역사주의(historicism) 등등으로

출현되었는데 (H. Dooyewaard,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p. 20), 최근에는 공산주의를 모든 진리의 표준으로 삼아, 모든 학문들의 해석을 맞추려고 정치적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영역주권

그러나 창조의 각국면들은 그 국면에 고유한 본성과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영역의 법칙으로 한 영역의 법칙을 통합하고 설명할 수 없다. 한 영역은 다른 영역에 의해 지배될 수 없는 핵을 갖는다. 이 진리를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처음으로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ing, 1880)으로 주장하였고, 헤르만 도예베르트가 이것을 인간 경험의 14-15개 국면들을 설명하는데 보편화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대도 한 학문분과가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두면, 다른 학문분과들도 모두 그 큰 성공을 거둔 학문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자기영역의 고유한 특성과 법칙들을 무시하고, 하나의 보편의사(擬似) 학문을 만들려고 시도해 왔다. 가장 눈부신 예가 물리학의 방법의 보편 적용이라고 할 것이다. 17세기 이후 물리학이 가장 눈부시게 발달하여 우리의 생활환경을 바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열매들이 기술과학들에 의해 입증되고, 그 입증의 결과가 생활의 편리화로 공헌하였다. 물리학의 이 성공 때문에 독립학문으로서의 정립과 발전이 더디다고 여겨진 학문분과들, 가령 생물학이나 화학등이 다 물리학적 방법과 설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영향력은 너무 지대하여 인문과학 혹은 정신과학에까지 수리적 방법론과 역학적 관제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동으로 정신과학의 방법론으로 해석학(hermeneutic)을 정립하였다.

통일과학의 시도

근세의 학문들은 물리학적 방법으로 한 영역의 사항들을 다른 영역으로 번역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 이 시도가 20세기 중엽까지 줄기차게 계속되어, 물리학의 방법론으로 모든 과학들을 통일하려는 통일과학(unified science)이 시도되었다. 이 시도는 경험론 과학철학자들이 중심이 된 비엔나 학파(vienna circle, Wiener Kreis)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과학의 왕자인 물리학으로 모든 학문을 통일하려고 하는 불가능한 시도를 무모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대영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의 한 기고자는 평하기를

중세 스콜라인들이 장대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 있을 수 있는가를 따졌던 것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였다고 하였다. 이들 철학자들은 나치의 박해를 받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므로 별 진행없이 중단하였다.

이렇게 -ism화나 다른 학문으로의 변환으로는 바른 지식과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재의 바른 설명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ism화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시도되어 왔다.

일반은총의 역사

그러나 고대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인류에 의한 학문 중사가 거짓 귀결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들에게서 진리의 파편들이 많이 개발되고 미와 선이 표현되었다. 이 현상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일반은총의 역사로 설명하였다. 창조주는 타락으로 인한 죄의 과격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과정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창조가 개발되게 하셨다. 이것을 일반은총의 역사라고 한다. 죄의 과격한 역사가 억제되게 하여 시민생활이 가능하게 그 기반이 조성되게 하고, 선이 행해지며, 창조가 탐구되게 하였다. 이 진리를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의 일반은총(De Gemeene Pratie)에서 잘 개진하였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탐구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일반적인 내적 증거(testimonium internum Generale Spiritus sanch)로 확실한 결과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칼빈 이후의 개혁 신학자들이 공히 가르치기를 우리가 성령의 일반적 내적 증거로 진리와 바른 지식에 이른다고 하였다.

바로 이 일반은총의 역사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가 탐구되어도 그 작업에 의해 부분적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또 참된 지식의 확신에 이르는 것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대상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류의 공동자산이다.

Ⅵ. 인류의식의 양 구분 : 중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류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죄아래 있던 인류를 변화시켜 은혜아래 사는 인류를 만들었다. 카이퍼는 이것을 중생으로 표시하였다. 새의식, 중생의식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인류가 둘로 나뉘게 되었고

따라서 의식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 또한 두 의식은 인류의 학적 활동도 둘로 나누게 하였다.

고대 교회 교부중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어거스틴)도 인류를 둘로 구분하였다. 그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과 땅의 도성(civitas terrena)로 나누었는데, 땅의 도성은 미움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 살며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도성은 사랑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 살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인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peregrinatio)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이처럼 인류가 둘로 구분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다. 그런데 카이퍼는 두 의식을 구분하여 의식이 둘로 나뉘므로 탐구의 대상은 동일하여도 학문이 둘로 나뉘는 것으로 보았다.

두 의식의 학문

중생한 의식, 새의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고 비중생의식으로 탐구함으로 두 학문으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중생하여 새의식을 가지므로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간다. 피조물적 존재는 의존적 존재이다. 존재 자체에 있어서만이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에 있어서도 의존적인 존재이다. 구원에 관해서만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활동은 다 창조주와 그의 경륜에 의존해야 한다. 특히 사고와 학문활동에 있어서도 의존적이어야 한다. 중생한 의식으로서 사물을 탐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의 창조의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곧 그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독창적이거나 구성적이라기 보다 재구성적이며 도출적이며, 또 그래야 한다.

재해석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곧 그의 지식의 실현이므로 우리의 창조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반틸(Cornelius Van Til)의 주장대로 해석에 있어서도 내 독창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서 하는 재해석이어야 한다. 이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통제되며 다 해석되었다. 바로 그 해석을 우리가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성경

그런데 창조주의 창조해석이 성경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성경이 창조에 관한 창조주의 최종해석이고 완전한 해석의 제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의 해석 혹은 그의 말씀의 빛 아래서 창조를 탐구해야 한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고하고 연구해야 한다.

Ⅶ. 기독교 학문

그러므로 기독교 학문은 성경의 가르침아래 학문을 진행한다. 중생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아래 탐구하여 지식체계를 구성함이 기독교적 학문이다. 성경이 현대 과학 언어로 쓰여지지 않는지만 모든학문이 기초할 근본 기초들 혹은 전제들을 다 제시하고 그 귀결을 결정하였다. 세상에 종교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중립적인 학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위 중립적인 것 같아도 그것은 기실 반성경적 즉 반기독교적인 전제에서 그와 대립한 방법론으로 일관한다. 소위 일반 학문에서의 자연주의는 기독교적 전제들에 대한 의도적 선택이다.

20세기 화란의 철학자 도에베이트트는 각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하기 이전 상태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전제로 역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본 시대정신은 다 종교적 동기이고 또 그 종교적 동기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밝힌다. 회랍 사상 특히 회랍철학을 지배한 근본동기는 형상(形相)과 질료(質料)이다. 이들은 상호대립되는 두 종교를 대변하는데, 둘은 조화하기 어려운 모순 개념이라고 한다. 질료는 민속신앙에서 나온 무규정적인 생명의 흐름을 나타내고 형상은 계몽된 지식인들의 종교인 아폴로종교, 곧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형상들의 종교를 대변한다. 연속적인 흐름은 구체적인 형상화를 용납지 않는다. 이처럼 회랍철학의 기본 도식인 형상과 질료는 상반된 두 종교에서 비롯되었다.

중생의 기본 도식은 자연과 은총인데, 자연은 회랍개념에서 따 온 것이고, 은혜는 기독교의 은혜 개념이다. 은혜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자연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자연은 낮은 차원의 존재 형식이고 은혜는 그 존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양한다. 둘은 전혀 상반된 모순 개념들이라고 할 것이다.

근세사상의 근본 동기 혹은 도식은 자연과 자유이다. 자연은 인과율의 영역이고 자유는 인격의 영역인데 기독교의 은혜를 세속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둘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근세인들은 자연을 지배하므로 자유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인과율의 확대적용은 결국 자유를 용납하지 않게 하였다. 이것은 결국 성경적 근본 동기에 반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와 무관한 중립적의미의 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옳다. 그것이 무종교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아도 기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에 반대해서 나타난 것이다. 가령 근대과학이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주의는 기독교의 초자연주의 곧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을 반대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설정되고 수납되었다.

전제들

기독교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아래서 수행된다. 기독교적 학문은 다음의 몇가지를 당연한 진리로 수납한다. 첫째 탐구의 영역을 하나님의 창조로 인정하고 탐구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학의 대상들을 하나님의 창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탐구의 영역 중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통상 존재문제는 배제하고 인식 혹은 지식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을 근세 이래 학의 본연의 자제로 하나 이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 이 존재 문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근세 철학은 실재, 실존, 존재(existence)를 학적 진술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직접적인 대상진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휘들을 "안에 넣어 문장의 의미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Rudolf Carnap, Meaning and necessity 참고) 대상과 무관하게 문맥내에서의 의미 추구로만은 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만물 통제를 인정 혹은 전제한다. 그러므로 학문종사자들이 합리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해석한 세계를 탐구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합리론이어서 불합리론은 배제된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세째로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의 빛에 의해서 탐구를 진행한다. 즉 자기 구성적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한다. 현대 물리학자의 한 사람인 C.F. 폰 바이첵커(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는 이 진리를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물리학자의 임무는 하

나눔에서 어떤 의장(design)으로 세계를 지으셨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Zur Weltbild der Physik참조). 물리학자 뿐 아니라 모든 학문 종사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여 그 지식을 피조수준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지식의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경륜, 그의 지식 그의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창조해석과 그 계시인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

학문의 목적 :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창조탐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현시이다. 우리의 탐구를 통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이 현시되면 그의 존재가 인정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직접적인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현시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신다. 하나님은 자기 영화(glorification)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사 그의 지혜와 덕을 기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 이 일을 추구하고 또 전무해야 한다. 학문활동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게 하셨다.

속량되어야

학적 종사가 하나님의 지식의 탐구이지만 탐구의 결과들을 바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일치시킬 수는 없다. 잘 진행된 지식의 체계도 큰 오류가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식체계의 회미한 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 특히 중생인들이 수행한 지식체계에도 오류와 오판, 그릇된 전제와 추리, 그리고 귀결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중생하여 원리적으로는 의롭고 바르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많은 죄의 오염과 오류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학적 탐구는 항상 파편적이고 불완전하며 임시적이다. 그러므

로 학문도 속량되어야 하고, 그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될 것이다. 학문이 탐구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속량된 세계이다. 그러므로 학문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다. 세계가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보존되어 왔고 또 실제로 구속되었다. 그러므로 학문은 이 진리위에 서 있고 또 이 진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에 편입됨

하나님께서 인류역사를 통치하사 그 역사에서 자기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인류의 손으로 이루어진 문화활동의 결과들이 소산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광에 도움이 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나라에 편입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낙원으로의 복귀만이 아니다. 처음 낙원은 동산이었으나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새예루살렘성이다. 이것은 창조의 모든 탐구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지적 노력이 결코 헛되이 결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문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려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속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문의 활동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증거되어야 한다.

한 학문

종말에 학문의 결과들이 속량되어 성경의 원리 아래 이룩된 학문에 통합될 것이다. 그러면 두 학문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한 학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한 창조를 탐구한 한 학문이 되어 창조주와 구속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학문활동의 본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게 된다.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의 경륜을 다 이루시게 된다.